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4호 [루체 제23176호] 주체99(2010)년 8월 12일 (목요일)

붉은기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올렸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올리는 꽃바구니와 선물을 엔도 노바카리단장이 있는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올렸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플래전 발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6일 메히포에서는 강연회가, 남아프리카와 타이에서는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주체사상연구 메히포 전국조직위원회, 메히포 김정일주의 연구위원회,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청년동맹, 타이 스타브라보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주체사상연구 메히포전국조직위원회 위원장은 강연회에서 선군정치의 본질과 정당성, 생활력을 우리 나라의 현실과 결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세계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50성상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의업을 수호하셨다. 그의 선군령도따라 조선인민은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 강성대국을 일떠세웠었다.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청년동맹 비서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뜻깊은 기념일에 즈음하여 강성대국건설에서 기치를 창조하셨다는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선군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다. 그의 선군정치가 있기에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되었으며 조선인민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고있다. 김정일령도자는 선군정치로 조선반도뿐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해주시는 위대한 수호자이다. 세계사주화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계시는 김정일령도자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조선의 대담》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에 즈음하여 메히포 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플래전 제4호를 발행하였다. 플래전은 《김정일령도자의 선군령도 50돐》이라는 제목의 글에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령도는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의 어느 한 땅크사단을 찾으신 때로부터 시작되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령도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오셨다.

사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자

오늘 당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들이 훌륭히 꾸러지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강성대국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기 위하여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5월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로 삼지연지구를 찾으신 이후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한 천만민국의 비장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거머쥐어 열어젖히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표시로 된다. 우리는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군, 전민이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떨치나선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온 나라에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내세지게 하여 한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간직하여야 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혁명업적을 숭고호수하는 위대한 사업이며 인민들의 사적지위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혁명전사로서 끝까지 완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인민군인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답사하면서 그에 대한 관리체제와 학술연구체계, 혁명사적지교육체제가 정연하게 세워 되었으며 백두산지구에로의 답사행군길이 열리게 되었다. 세상에는 우리 나라와 같이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생명력을 잃지 않을 귀중한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을 통한 교양사업이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나라는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5월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로 삼지연지구를 찾으신 이후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한 천만민국의 비장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거머쥐어 열어젖히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표시로 된다. 우리는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군, 전민이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떨치나선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온 나라에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내세지게 하여 한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간직하여야 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혁명업적을 숭고호수하는 위대한 사업이며 인민들의 사적지위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혁명전사로서 끝까지 완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인민군인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답사하면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대고조진군에 박차를 가하며 신심드높이 앞으로!



조국 해방의 만단사연을 전해주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현지말씀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대표자회를 맞으며 흥남가스화대상건설에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더욱 세차게 내세워졌다. 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가스발생로와 청정압축기실, 저탄장, 건조분쇄장, 수송부도를 비롯한 생산건물공사가 역량을 집중하여 가스화암모니아공정 1계열대상건축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설비와 장치물조립 및 설치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경제로대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8월초 또다시 흥남비료련합

전국청년동맹초급선진일군들의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해산출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돐을 맞아 전국청년동맹초급선진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서의 답사행군이 시작되었다. 답사행군대출발모임이 11일 해산광장에서 있었다. 모임에서는 장현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반세기에 이르는 선군혁명령도자는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마련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거창한 전진이 이루어진 창조와 변혁의 력사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웠지만 항일혁명선열들의 투쟁정신이 깃들여있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는것은 크나큰 영광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이 항일혁명선열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의 위대한 구상을 빛내 실현하는 결결한 혁명자가 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온 사회에 총대중시, 군사중시기풍을 더욱 철저하게 세우며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대고조전투장의 새 소식

연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계속 전진

신의주선박공장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7월달현재 연간계획을 116%로 넘쳐 수행한 기세로 계속 전진하며 련일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가고 있다. 계획수행기간 이곳 선박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수놓으며 힘찬 투쟁을 벌리었다. 그리하여 이미 여러척의 자동부립선과 해상공학기를 만들어내고 많은 고기배들을 수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날 계획은 그날로 꼭꼭 수행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뜻깊은 올해에 연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조직 동원하였다. 일군들은 선제직장, 기계직장, 완성직장에서 내거 생산자대중에서 정치사업을 확신적으로 확고히 벌려 그들모두가 맡은 임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도록 하였다. 직장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생산현장에서는 새로운 혁신들이 연이어 창조되었다. 배무이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선제직장에서는 매 공장마다에서 합리적인 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이면서 설비마다 만 부하의 동을을 세차게 올려 연간 배무이계획을 6월말까지 111%로 앞당겨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특히 제2작업반의 노동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의 혁명적 불결을 세차게 일으켜

장군님 잊지 못하시는 이름있는 작가

의 동출선생을 영생의 언덕에 세워준 고키한 은성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 시대의 명작을 남긴 작가는 평도자의 심장속에 영원한 추억을 남기게 된다.

열정적인 창작활동으로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었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잊지 못하는 문필재상이 그 얼마인가.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리동춘선생도 한생의 심혼이 어린 명작들과 더불어 우리 장군님께 커다란 감회를 불러일으키는 작가이다.

지난 4월 어느날 국립연극단에서 제작 조한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작품을 그전에 사회안전부연극단 창작실 작가였던 리동춘동무가 썼는데 정말 잘 썼다고, 그는 지난 시기의 작가들 가운데서 자신께서 알고있는 이름있는 작가라고 깊은 회고의 말씀을 하셨다.

이름있는 작가 리동춘선생.

사람들의 기억에서 삭막해졌던 그가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가슴뜨거운 사연은 조선의 작가들이 누리는 영광과 행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귀한 대담을 주셨다.

세겨넣었다.

돌이켜보면 시대가 명작을 낳는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수령님 펼치신 천리마시대처럼 문학예술의 모든 영역에서 명작이 쏟아져 쏟아지고 명인재상이 무수히 배출될 때가 력사의 어느 시대에 있었는가.

지난날의 천덕꾸러기들이 천리마시대로, 영웅으로 후추속순천을 자랑하니 시대는 우리 작가들의 창작활동에도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한편의 문학예술작품이 천사들, 만사들을 천리마에 태우는 위력한 힘으로 되어야 한다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원고지옥을 이 배낭을 지고 시대의 격류속에서 북돋는 사람들이 얼마나지 모른다.

위대한 그 품에 안겨져 때면 누구라겠이 불타오르는 충정이 리동춘선생의 가슴속에도 쇠붙이를 뚫어버렸다.

수령님의 사상과 뜻을 내 한생 천리마를 타고 따르라!!)

수령님의 사상에 심장으로 공감하고 조국의 번영을 누구보다 열망하였기에 그는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며 경희극 《산울림》과 같은 명작을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희극 《산울림》은 시대정신으로 심리혼을 불태운 리동춘선생의 송고한 사랑감이 낳은 대표작인 명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당 제1차대회용 알곡중산으로 맞이할데 대한 당의 호소가 전해지자 그는 마시령머리의 범둥군 어유리터 달려갔다. 범둥은 물론 그는 산골에서 당정령이 빛나게 구현되는 현실을 작품에 반영할 결심이었다. 그는 배낭을 수속에 벗어놓는길로 일손을 잡았다. 그 누구인들 천행처럼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당의 은덕으로 부러운것 없는 이곳의 현실은 극작품의 소재를 얻기에 적합치 않은 듯싶었다. 소재탐구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릴 나약한 마음이 불쑥거기기도 하였다. 그런 때면 작가적정성이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나 어느 하루 농장에서 느낀 소감을 놓고 군당일꾼과 마주앉았던 리동춘선생은 일순간 눈이 번쩍 뜨이웠다. 저만과 혁신! 지식인의 숨겨진 용암이 터져오르듯이 창작적사색이 한껏 응축된 그의 뇌리에 작품의 문제점이 섰 펼쳐면 번뜩거렸다. ...

어버이수령님께서 경희극 《산울림》을 높이 평가하신 그때에 벌써 리동춘선생의 작가적충실성과 뛰어난 재능을 깊이 헤아리신 분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이시다.

토지개혁법발표 16일을 맞던 주제 51(1962)년 3월 6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국립연극극장에서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생들이 출연한 경희극 《산울림》을 보셨다.

그이께서는 공연을 보시고서서 경희극창조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이 작품을 보면서 누구나 생각할만한 것이 계속적. 계속전행해나가는 한다는 조각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뜻있게 말씀하셨다.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 전문배우 못지않게 연기를 잘한 출연자들에게 풍요와 《금강산》을 안겨주시는 사색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혁명일화이다.

리동춘선생은 력사의 그날과 더불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기억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의 경력적 활기 채워주셨던 때를 되돌아보시니 그의 창조하는 작가들에 대한 그의 애착은 창고로 각별한 것이었다.

지난 4월 국립연극단에서 제작 조한 경희극 《산울림》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극장을 떠나오신 후에도 리동춘선생을 감회깊이 회상하시면서 《리동춘동무는 이름있는 작가입니다.》라고 또 다시 은성같은 말씀을 하셨다.

우리 장군님의 추억의 세계에 안긴 문필재사는 잊혀지는 법이 없으며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다.

리동춘선생은 너무나 뜻밖의 사실앞에서 굳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를 맞이한 한 일꾼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날 극장에서 돌아오신 후에 도 쉬지 않고 친히 작성하신 작품수정안을 넘겨주시는 것이었다.

동네이 밝아올 무렵까지 작품대본을 마무리하고는 수령님의 로고 사무원과 그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심정에 휩싸였다.

필름의 우동불가에서 《리동춘》의 대본을 쓰신 항일전线的 그 나날처럼 한밤을 지새우시며 명작창작의 세계를 펼치신 자애로운 스승의 손길!

일찍이 항일의 불길속에서 《리동춘》, 《검출대회》, 《생활단》, 《3인 1담》, 《혈분만국외》와 같은 수많은 연극들을 창작하시어 찬탄성장을 격동시키고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력사를 써내려온 우리 수령님이시다.

세계문학재민들을 도통하고 인류지성을 굽어보시는 문학예술의 거장인 위대한 수령님의 슬하에 안기였기에 리동춘선생의 작품들은 생동하고 인상깊은 형상속에서 혁명의 진리가 흘러나오는 명작들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천리마시대의 격동기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가시는 우리 수령님의 두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실렸으랴. 하지만 그이께서는 시대의 명작을 내놓는 일이라던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않으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리동춘선생의 작품을 자주 보아주시면서 때로는 작가를 불러 생각되는 점을 순서 사주시고 언제든지는 연극의 제목도 즉석에서 훌륭하게 교체하시었으며 어느 장편은 살피고 어떤 부분은 없애버리는 등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등 실로 구체적인 지도를 주셨다.

저녁식사와 미루시며 작품의 구성과 인물형상방도를 일깨워주시고 력사문제 위급을 어려워할 때에는 오랜 시간 당시의 구체적인 실태까지 알려주시던 그 많은 이야기를 어찌 다 전할 수 있으랴.

그 나날 리동춘선생은 전형창조에서 정책적대를 위한 방법론,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세화시키는 수법, 생활적이며 학적인 대사를 끌어내는 묘리들을 체득하며 《극을 위한 극》에 배어달리던 낮은 극작품을 넘어버릴 수 있었다.

연극 《새벽》, 《인민을 위한 숲은 푸름》, 경희극 《자랑받은 인생일》 등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에서 탄생된 그의 작품들은 인민들속에 걸친 찬란한 자아였다.

우리는 여기에 리동춘선생이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상을 감동깊이 체현한 한가지 사실만을 더 전하고자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가 창작한 연극 《서회장군》을 지도하시며 때때로, 연극이 막을 내리자 수령님께서 리동춘선생을 휴게실로 부르셨다.

한달음에 달려와 인사를 올리는데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어 어버이수령님께서 작품에 있어 중요 대작이라고 하시면서 동행한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라고 등을 떠밀어주시는 것이었다.

이름없는 작가를 슬하에서 손때묻혀 키워주시고 그의 성장이 못내 더없이 내세워주시고 싶어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응시같은 사랑.

정녕 그것은 리동춘선생에게 명작창작의 지혜와 열정을 샘솟게끔 부어준 귀중한 자양분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느새 찾아오시는 그를 신년경축연회에 부르지어 촉배간까지 들려주시며 세해에도 건강하여 좋은 작품을 많이 쓰라고 따뜻한 당부하셨다.

리동춘선생은 따뜻한 믿음에 보답할 열망으로 지나가네 피땀이 자신을 강그러마친 전배배가 되었다.

《창작은 빛이 아니라 심정으로 하는 일이다.》

이것이 그의 신조였다. 그는 앉으나서나, 잠결에서조차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명작을 내놓기 위해 사색을 멈추지 않았다. 당에서 알곡중산용 호소하면 그 길로 혈통법에 나가 기쁨을 지나르며 심혈을 기울였고 우리 당의 반체제주의적정신을 찬미하며 창작자들은 배려하지 않는 우리 인민의 강한 기질을 무대에 담기 위해 고사들을 뒤적이며 밤을 지새웠다. 그의 작품들이 당정책에 민감하고 구수한 흥남성, 기쁨내를 일제 풍기는것은 이런 흥남성의 결실이었다.

혁명의 길에서 맺어지고 창작의 세계에서 두터워진 배두산위원들과 리동춘선생사이의 인간관계는 위대한 스승과 작가사이의

한없이 고결하고 의리깊은 판재로 우리 혁명시의 갈피갈피를 빛나게 장식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문학예술혁명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신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대의 명작들이 쏟아져나와 주체문학예술의 보물고고를 풍부히 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식영역에도 놀라운 진전을 가져왔던가.

리동춘선생을 늘 마음속에 새겨두셨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연극혁명의 격동적인 시기에 그를 불후의 고전적명작 《생활단》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현하는 영예로운 대오에 세워주시었다.

세상을 경탄시킨 영화혁명, 가극혁명의 불길을 목격하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온넋이 풀리었다 그는 젊음이 넘치는 배두산위원의 슬하에서 가슴벅찬 성장기를 또 한차례 체험하게 되었다.

주체의 심원한 원리가 구현된 철학적인 종자, 풍자극을 생활의 논리에 따라 웃음도 있고 사색도 있게 끌고나가는 문제, 생활을 조화롭고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다장편구성형식, 흐름시립제무대와 음악을 도입한 황홀한 무대종합예술...

우리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를 받아안던 그 나날은 연극창작에 한생을 바치신 리동춘선생을 잊기 쉽지 못한 신비의 세계로 걸음걸음이 이끌어준 환희와 경란의 날과 달이었다.

주제 67(1978)년 8월 31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연극 《생활단》의 시연회를 보시고 연극혁명의 첫 승리를 선포하신 력사의 그날 리동춘선생은 그이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였다.

백두의 정기를 타고나신 우리 장군님께 무한히 매혹되어 행복해 찾아있던 그 시각 그의 심장은 이런 웨임을 터치고있었다.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모시어 주체연극예술은 찬란한 개화기를 맞고 이 천사도 끊임이 촉부받은 삶의 길을 걸어나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혁명앞에 큰 공적을 남기면서도 언젠한번 앞에 나설 줄 모르는 리동춘선생에게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손목시계도 채워주시고 김일성상대인의 값있는 영예도 안겨주시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풀이개에서 온 편지》를 《생활단》식연극으로 무대에 올리던 나날에도 그를 믿어주시는 장군님께서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는 작가를 어버이수령님을 모시는 기념촬영장에 내세워주시었다.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작가들의 신념은 백두의 매부리처럼 역세고 강직하다. 그들은 불꽃을 버리고 또 버리며 주체혁명영웅의 뿌리가 나던 력사의 화폭들을 후세에 길이 전해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셨다.

리동춘선생도 그런 작가였다. 그가 주제 57(1968)년에 창작완성한 연극 《우리의 어머니》는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간적녀사의 혁명활동과 송고한 혁명가적품모를 형성한 대표적인 연극으로서 주체연극예술에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절세의 위인들의 슬하에서 창작의 정성기를 꽃피운 리동춘선생의 긍지높은 삶은 그의 충정과 열정이 숨겨진 수많은 극작품에 영원히 저울수 없는 자옥으로 비껴있다.

격동하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을 따라 운명을 함께 하여온 우리 작가들의 빛나는 자옥을 머슴을 때면 감동깊이 되새겨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이 되새겨진다.

《작가는 시대의 양자에서 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가 되어야 한다.》

이 유명한 명언은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기만 할것이 아니라 생활의 선도자, 혁명의 나팔수가 되어야 하는 우리 작가들의 영예로운 사명을 밝힌 귀중한 지침이다.

국립연극단에서 제작 조한 경희극 《산울림》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작가가 마치 오늘을 내다보고 이 작품을 쓴것 같다는 작가가 간직되어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리동춘선생을 심중에 새겨두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희극 《산울림》을 보시고 농촌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한 좋은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신 때부터였다.

주제 50(1961)년 10월 어느날 이었다.

천리마의 기상으로 들끓는 조국강산에 가슴이 열리고있었다.

그무렵 강건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나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쁘신 시간을 내시어 강원도리메출극장 (당시)에서 창작완성한 경희극 《산울림》을 보아주시었다.

이날 극장관람석에는 류립제 흥분되어있는 한 작가가 있었다. 그가 바로 경희극 《산울림》의 대본을 창작한 리동춘선생이었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우려리었던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리던 정작 막이 오르지 그는 근심부러 앉았다. 우리 연극계에서 처음으로 계급적갈등이 아닌 웃음을 담은 이 경희극은 무대에 오른 첫날부터 룬난에 부딪히고있었다. 룬쟁거리던 작가가 어버이수령님께 격정을 꺼져드려면 어쩌랴싶고 그는 뒤설레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고있었다.

무대우에 펼쳐지는 생활을 주의깊게 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미를 현형으로 하려는가. 작가가 누구인가를 물으시고 나서 아주 탁월적이고 웃실 그대로요! 라고 하시며 로랑하게 웃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이 끝나자 제일 먼저 박수를 보내시며 이렇게 고시하시었다. 《잘했습시다! ... 이런 작품을 많이 써야 하겠습시다. ...》

탁월적이고 긍정이 있고 명랑하고 아주 좋습시다. 진실하고 근래의 좋은 작품입니다.》

순간 리동춘선생은 뜨거웠듯이 울적 치밀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북받쳐오는 감사의 정은 맑은 눈물이 되어 두볼을 타고 허영없이 흘러내리었다. 이날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흘러는 나팔음이 들리켜져 온반 잠꾸러기였다.

리동춘선생이 배운것이란 배양된 사립학교를 한해 드나드는데도 전부터였다. 가난이 켜는 황해북도 봉산군의 한 농촌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적부터 남의 집 아이보리와 품팔이로 실을기 가실세 없었다. 종일 가야 고역받은 실던 그에게 제일 큰 소망은 연극극을 실컷 해보는 것이었다. 연극에 정성을 팔면 잠시나마 가난한 처지를 잊고 고향의 나래를 퍼게 되었다. 그는 없는것에 꾸러리를 잡히려 내뿜기우면서 하루에도 몇번씩 객적으로 숨어드는 그의 끈적진 심미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다.

해방의 환희성이 온 강산을 전진하고 남녘으로바꾸 극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던 때에 리동춘선생도 비로소 찬란한 빛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해탄머머까지 끌려다

니며 20살나이를 막돌처럼 썩인 더벅머리 련년은 예술의 꿈도 꽃피울수 없었다.

리동춘선생은 하늘같은 그 은덕이 눈을 접도록 고마왔다. 그럴수록 우리 인민의 세 생활을 무대우에 마음껏 펼치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누를길 없었다. 이렇게 되어 황해북도 한 예술단체에서 배우생활을 하던 그는 용약 창작의 붓을 들게 되었다.

전후 황해제철소 (당시) 복구공사를 다그쳐 끝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해들자 리동춘선생은 아예 가족까지 다 데리고 황철에 나가기도 하였다. 철생산자들의 생활을 밀바닥까지 체험하는 것이었다.

한번 내린 결심은 쏜해서 거두지 않는 그에게 어느날 안에는 현실처럼 멀어지는 작가 내려가 자리를 잡고 집에 드나들면서도 할수 있지 않겠느냐고 은근히 속삭임을 내비쳤다. 담뉘뒤바라지에 애어린 자식들까지 거두어야 하는 안해의 심정을 그가 도를 몰라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전쟁의 상처를 빨리 가시고 나같이 천대반인 사람들을 세상에서 제일 잘 고쳐 해주시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뜻이요. 황철이 끝났는데 로동계급을 고무하는 글을 꼭 써야겠소. 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붓을 잡았는데 어찌 쉬운 길만 택하겠소.》

이것은 리동춘선생의 심장의 토로였다. 이렇게 황철에 내리던 그가 용해공들과 함께 펄펄 끓는 쇠물을 다루며 로동계급의 대쪽같은 신념과 깨끗한 량심도 배우고 로동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사랑과 전진적의 품을 용납하지 않는 쇠소리나 그의 길에도 공감하면서 벅찬 창조성을 원고지에 그대로 옮겨놓은 작품이 연극 《위대한 힘》의 대본이었다.

천만운명을 한몸에 안고 광명한 미래에 또 이끌어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름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의 애국적열정을 귀중히 여기시며 시대의 복판으로 힘껏 떠밀어주시었다.

사회주의혁명승리의 만세소리가 하늘땅에 차넘치던 주제 47(1958)년 9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연극 《위대한 힘》을 보아주시었다.

연극을 보신 수령님께서는 창작가들을 몸가짜이 부르시었다. (수령님께서 부르시다니?...)

숨이 꺾 막히는듯한 소식이었다. 리동춘선생은 어느결에 그이에게 당도하였는지조차 의하지 못하였다.

창작가들을 반갑게 맞아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연극은 교양적가치가 크고 시기적절한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대단히 좋습시다. 류사성과 도식성을 완전히 청산한 연극입니다. 작품이 연설로 된것이 아니라 생활자체를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높이 치하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작품의 맺기부 부족함을 차근차근 일깨워주시고 나서 여러 군을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아주 성공한 연극이라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성공한 연극!

크나큰 기쁨에 넘쳐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수습히 부르며 리동춘선생은 당이 바라는 작품이 어떤 것인가를 뇌리에 깊이

의 정세가 조성된 때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문학예술이 발휘하는 힘을 대없이 증시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꼭 매시어 단련봉극장에 나오시었다.

이날 리동춘선생이 대본을 완성한 연극 작품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작가들을 부르시어 수고 부했다. 그런데 작품은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작품의 수정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해주셨다. 그이께서 국장을 떠나신 때는 별들만이 총총한 자정이 가가와무렵이었다.

다음날이었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찾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간

리동춘선생은 너무나 뜻밖의 사실앞에서 굳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를 맞이한 한 일꾼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날 극장에서 돌아오신 후에 도 쉬지 않고 친히 작성하신 작품수정안을 넘겨주시는 것이었다.

동네이 밝아올 무렵까지 작품대본을 마무리하고는 수령님의 로고 사무원과 그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심정에 휩싸였다.

필름의 우동불가에서 《리동춘》의 대본을 쓰신 항일전线的 그 나날처럼 한밤을 지새우시며 명작창작의 세계를 펼치신 자애로운 스승의 손길!

일찍이 항일의 불길속에서 《리동춘》, 《검출대회》, 《생활단》, 《3인 1담》, 《혈분만국외》와 같은 수많은 연극들을 창작하시어 찬탄성장을 격동시키고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력사를 써내려온 우리 수령님이시다.

세계문학재민들을 도통하고 인류지성을 굽어보시는 문학예술의 거장인 위대한 수령님의 슬하에 안기였기에 리동춘선생의 작품들은 생동하고 인상깊은 형상속에서 혁명의 진리가 흘러나오는 명작들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천리마시대의 격동기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가시는 우리 수령님의 두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실렸으랴. 하지만 그이께서는 시대의 명작을 내놓는 일이라던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않으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리동춘선생의 작품을 자주 보아주시면서 때로는 작가를 불러 생각되는 점을 순서 사주시고 언제든지는 연극의 제목도 즉석에서 훌륭하게 교체하시었으며 어느 장편은 살피고 어떤 부분은 없애버리는 등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등 실로 구체적인 지도를 주셨다.

저녁식사와 미루시며 작품의 구성과 인물형상방도를 일깨워주시고 력사문제 위급을 어려워할 때에는 오랜 시간 당시의 구체적인 실태까지 알려주시던 그 많은 이야기를 어찌 다 전할 수 있으랴.

그 나날 리동춘선생은 전형창조에서 정책적대를 위한 방법론,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세화시키는 수법, 생활적이며 학적인 대사를 끌어내는 묘리들을 체득하며 《극을 위한 극》에 배어달리던 낮은 극작품을 넘어버릴 수 있었다.

연극 《새벽》, 《인민을 위한 숲은 푸름》, 경희극 《자랑받은 인생일》 등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에서 탄생된 그의 작품들은 인민들속에 걸친 찬란한 자아였다.

우리는 여기에 리동춘선생이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상을 감동깊이 체현한 한가지 사실만을 더 전하고자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가 창작한 연극 《서회장군》을 지도하시며 때때로, 연극이 막을 내리자 수령님께서 리동춘선생을 휴게실로 부르셨다.

한달음에 달려와 인사를 올리는데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어 어버이수령님께서 작품에 있어 중요 대작이라고 하시면서 동행한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라고 등을 떠밀어주시는 것이었다.

이름없는 작가를 슬하에서 손때묻혀 키워주시고 그의 성장이 못내 더없이 내세워주시고 싶어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응시같은 사랑.

정녕 그것은 리동춘선생에게 명작창작의 지혜와 열정을 샘솟게끔 부어준 귀중한 자양분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느새 찾아오시는 그를 신년경축연회에 부르지어 촉배간까지 들려주시며 세해에도 건강하여 좋은 작품을 많이 쓰라고 따뜻한 당부하셨다.

리동춘선생은 따뜻한 믿음에 보답할 열망으로 지나가네 피땀이 자신을 강그러마친 전배배가 되었다.

《창작은 빛이 아니라 심정으로 하는 일이다.》

이것이 그의 신조였다. 그는 앉으나서나, 잠결에서조차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명작을 내놓기 위해 사색을 멈추지 않았다. 당에서 알곡중산용 호소하면 그 길로 혈통법에 나가 기쁨을 지나르며 심혈을 기울였고 우리 당의 반체제주의적정신을 찬미하며 창작자들은 배려하지 않는 우리 인민의 강한 기질을 무대에 담기 위해 고사들을 뒤적이며 밤을 지새웠다. 그의 작품들이 당정책에 민감하고 구수한 흥남성, 기쁨내를 일제 풍기는것은 이런 흥남성의 결실이었다.

혁명의 길에서 맺어지고 창작의 세계에서 두터워진 배두산위원들과 리동춘선생사이의 인간관계는 위대한 스승과 작가사이의

한없이 고결하고 의리깊은 판재로 우리 혁명시의 갈피갈피를 빛나게 장식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문학예술혁명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신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대의 명작들이 쏟아져나와 주체문학예술의 보물고고를 풍부히 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식영역에도 놀라운 진전을 가져왔던가.

리동춘선생을 늘 마음속에 새겨두셨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연극혁명의 격동적인 시기에 그를 불후의 고전적명작 《생활단》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현하는 영예로운 대오에 세워주시었다.

세상을 경탄시킨 영화혁명, 가극혁명의 불길을 목격하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온넋이 풀리었다 그는 젊음이 넘치는 배두산위원의 슬하에서 가슴벅찬 성장기를 또 한차례 체험하게 되었다.

주체의 심원한 원리가 구현된 철학적인 종자, 풍자극을 생활의 논리에 따라 웃음도 있고 사색도 있게 끌고나가는 문제, 생활을 조화롭고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다장편구성형식, 흐름시립제무대와 음악을 도입한 황홀한 무대종합예술...

우리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를 받아안던 그 나날은 연극창작에 한생을 바치신 리동춘선생을 잊기 쉽지 못한 신비의 세계로 걸음걸음이 이끌어준 환희와 경란의 날과 달이었다.

주제 67(1978)년 8월 31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연극 《생활단》의 시연회를 보시고 연극혁명의 첫 승리를 선포하신 력사의 그날 리동춘선생은 그이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였다.

백두의 정기를 타고나신 우리 장군님께 무한히 매혹되어 행복해 찾아있던 그 시각 그의 심장은 이런 웨임을 터치고있었다.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모시어 주체연극예술은 찬란한 개화기를 맞고 이 천사도 끊임이 촉부받은 삶의 길을 걸어나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혁명앞에 큰 공적을 남기면서도 언젠한번 앞에 나설 줄 모르는 리동춘선생에게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손목시계도 채워주시고 김일성상대인의 값있는 영예도 안겨주시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풀이개에서 온 편지》를 《생활단》식연극으로 무대에 올리던 나날에도 그를 믿어주시는 장군님께서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는 작가를 어버이수령님을 모시는 기념촬영장에 내세워주시었다.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작가들의 신념은 백두의 매부리처럼 역세고 강직하다. 그들은 불꽃을 버리고 또 버리며 주체혁명영웅의 뿌리가 나던 력사의 화폭들을 후세에 길이 전해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셨다.

리동춘선생도 그런 작가였다. 그가 주제 57(1968)년에 창작완성한 연극 《우리의 어머니》는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간적녀사의 혁명활동과 송고한 혁명가적품모를 형성한 대표적인 연극으로서 주체연극예술에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절세의 위인들의 슬하에서 창작의 정성기를 꽃피운 리동춘선생의 긍지높은 삶은 그의 충정과 열정이 숨겨진 수많은 극작품에 영원히 저울수 없는 자옥으로 비껴있다.

천리마시대의 명작과 더불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선군혁명의 폭풍속에서 문학예술의 비상한 위력을 최상봉대로 펼쳐가시는 위대한 평도의 거장이다.

김일성민족의 위업을 과시하며 광명한 미래로 도드레 나아가는 우리 조국강산에 강성대국의 《산울림》이 장쾌하게 울리고있다.

지난 5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의주방면에서 돌아오신길로 대성황리에 운원되셨는데는 김일성상대판작품 경희극 《산울림》을 또다시 관람하시었다.

대외활동의 긴장한 나날에도 명작의 화폭들이 자주 생각나시고 승리의 신심이 북받쳐오르시며 절절한 피로를 후실사이어이 품은대담을 다시 마주하신 그이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희극 《산울림》은 불후의 작품이 훌륭하다고 하시며 《작가 리동춘동무가 경희극 《산울림》 대본을 잘 썼습시다.》라고 다시금 높이 치하하시었다.

그의 은성같은 말씀은 당과 수령을 일평단 받든 한 작가에게 안겨지는 고귀한 영광과 력사의 갈피에 깊이 새겨졌다.

근 반세기가 흐른 때에 천리마시대의 명작을 다시 무대에 펼쳐주시고 작품에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고도 작가의 공적을 거듭 내세우시는 위대한 은인인 경애하는 장군님!

그 감격적인 시각은 리동춘선생의 마지막 소원이 풀리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경희극 《산울림》의 가치와 생명력을 일찍부터 포괄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창조와 기적으로 감성이 들끓던 1980년대에도 함경남도예술단체에서 이 경희극을 제작조하여 무대에 올리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전달받은 리동춘선생의 은모음에 새긴이 후추겨웠다. 그는 병약한 몸이었지만 끝까지 버텨주었다. 시대의 부름에 화답하는 우리 작가들의 충정은 바로 이렇다. 매식을 잊고 책상을 뜨지 않는 그를 안해와 자식들도 어쩔수 없었다. 불행중의아는 창작진투로 작품을 다시 완성한 그는 창조집단에 연고를 넘겨준 몇시간후 애석하게도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다. 그날은 주제 77(1988)년 3월 24일이었다.

경희극 《산울림》의 창작으로 시대를 울리고 사연깊은 명작과 함께 생의 마무리를 의의있게 장식한 리동춘선생. 그의 고결한 충정이 우리 장군님의 의리깊은 손길에서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으니 그가 이 사실을 안다면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고 또 적시였으리라.

참으로 김일성상대판작품 경희극 《산울림》은 시대의 명작을 남긴 제자들을 세월의 한갈래기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송고한 의리의 세계에 안긴 리동춘선생의 삶의 메아리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동춘선생에게

안겨주시는 대해같은 은정은 우리 작가들에 대한 사랑과 의리의 정화를 이루고있다.

지난 4월 30일에 진행된 경희극 《산울림》창조사업에서 공로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표창식에서는 리동춘선생에게 로력영웅칭호가 수여되었다.

20년전적에 창작의 고통을 멈춘 작가에게 영웅메달이 안겨진 시각 오열을 떠르리는 유가족은 물론 온장에 격정의 파도가 일렁이었다.

세월의 이기속에 파묻혔던 공적이 비로소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한 행적을 기리는 창조자도 아닌 그 가 불멸의 위훈자로 다시 세상에 나게된 이 경이적인 사실이야말로 회세의 의리인인 우리 장군님께서만 창조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혁명적실이다.

리동춘선생은 오늘 예극원사대를 올라 평도자의 품에서 영생하는 작가의 영광만 친 삶을 온 세상에 유가하고있다.

그는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과 뜻도 명도 함께 하며 생의 마지막까지 부대를 놓지 않는 송고한 모험을 보여주었다.

시대의 자유이 비긴 그의 명작들은 수령의 품에서 자란 작가는 현제만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생활을 선도하며 혁명을 힘있게 추동해야 한다는 철리를 새겨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5월 12일 리동춘선생의 유가족이 삼가 올린 편지를 친히 보아주시었다.

금줄머래 현연되길 없는 고마움과 다할 없는 충정의 맹세까지 되풀이 그 편지를 받아 보실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평도자를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해 더욱 힘있게 일해나갈지 자신의 심중을 담아 편지에 친필을 남겨주시었다.

리동춘선생과 그 유가족에게 끊임없이 배려하시는 이 전설같은 사랑과 의리는 결코 한 작가에게만 머무르지는 않는다.

위대한 스승, 위대한 어머니를 모시어 21세기 문예부흥의 환희로운 현실이 펼쳐지고 또 따르는 훌륭한 우리 인민을 빛을 뿌리는 내 나라, 내 조국!

로애에도 있듯이 위대한 장군님과 사랑과 의리로 굳게 맺어진 조선의 작가들은 따르는 마음도 하나, 받드는 마음도 하나이다.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심장의 부름으로 화답해나서는 열혈작가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우기에 김일성강성대국의 진군나팔소리는 오늘도 대령도 누리며 전진하여 찬란한강장에 불을 달것이다.

후추승리를 소리쳐 부르는 경희극 《산울림》의 메아리와 더불어 리동춘선생의 삶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언제나 살아있을 것이다.

본사기자 백 룬 본사기자 김성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최영림동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에게 위문전문을 보내다

배이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호금도동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은가보동지

우리들은 귀국의 갑속성 주축현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여러 지역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손실이 났다는 불행한 소식이 접하여 당신들과 당신들을 통하여 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보냅니다.

우리들은 피해지역 인민들이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의 평도원에 자선체재의 후파를 하루빨리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최영림 동지

주제 99 (2010)년 8월 10일 평양

평안남도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창립 40돌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안남도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창립 40돌 기념보고회가 10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량호주 평안남도 당위원회 비서, 관계부서 일꾼들, 사적관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평안남도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창립 65돌을 맞는 율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전변의 해로 빛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총공격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창립 40돌을 맞는 평안남도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평안남도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은 주제 59(1970)년 8월 1일에 창립된 후 지난 40년동안 당에 길들여지는 배두산 3대 장군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옹호하고 수호하고 빛내이며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정풍으로 교양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축하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사적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평도자 김일성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품소 평안남도를 찾으시어 도가 나아가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귀중한 혁명사적자료와 사적물들을 수많은 발굴수집하고 종합체계화하여 전시함으로써 사적관을 유일사상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꾸리었다.

8월 1일에 창립된 후 지난 40년동안 당에 길들여지는 배두산 3대 장군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옹호하고 수호하고 빛내이며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정풍으로 교양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축하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사적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평도자 김일성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품소 평안남도를 찾으시어 도가 나아가갈 앞길을 환히

동강의 활발히 진행하여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명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고 대중을 새로운 혁명적대교조로 불러일으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평안남도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고결한 도덕의식을 지니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풍의 견결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전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판정 전봉녀의 보고에 이어 실장 박선용, 파장 리정애, 창작가 최광혁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평도원에 사적관이 지난 40년간 절세인민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빛내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일꾼들과 강사들이 강내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위대성신건을 기동적으로 참신하게 벌려 근로자들을 강성대국건설에로 적극 불러일으킬 것으로 당창립 65돌과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희천속도로 내달려 자랑찬 로력적성 성과를 안고 당대표자회를 맞이하자

희천 발전 소 건설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

총공격전의 기상 떨치며 새로운 위훈 창조

장성대군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에 총공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 창조자들이 내세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에 간직한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할 불같은 열정을 안고 공사장마다에서 자랑찬 위훈을 수놓아가고있다.

지금 공사장에서는 언제건설과 돌격공사를, 발전기설치설이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다. 뛰-뛰-소리를 내며 기운차게 돌아가는 팔레트카를과 혼합물, 경정적으로 혼합물을 나르는 벨트콘베아와 자동차들...

언제올 오가며 부재운반과 혼합물다짐을 하는 유압식굴착기들과 로라다짐기들의 세찬 동음이 울리는 언제건설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실적이 속속 올라가고있다.

그러나 희천 발전소 건설을 모르는 돌격공공사장에서는 기본물결의 도강결정을 끝낸 단위들이 연이어 개착공사, 콘크리트복공사에 진입하고있다.

지금 공사장은 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내려는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비상한 열의로 하여 더욱 세차게 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군, 전민이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혁명적근인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삼바싸워나갈 때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할 강적이 없고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요새가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올해 계획들이기에 지난 4월 또다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고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로력적성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고 대고조도의 앞장에서 더 높이 비약하도록 고무격려해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올해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안아 놓고는 각오를 안고 공사장마다에서 대고조제 제일투사로서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희천 1호발전소 뿔뿔이 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송고한 뜻을 하루빨리 꽃피게 한마음으로 공사장마다에서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은 공사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혼합장들과 골재선별장들을 현장 가까이 더 전개해놓고 콘크리트치기를 다그치고있다. 박정봉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완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장마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합리적 시공방법을 찾아내어 공사실적을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희천 2호발전소 언제건설을 맡은 조선인민내무군 정장봉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희천속도창조자의 본래를 파시하며 언제공사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성, 중앙기관과 각 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물결공사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함경남도과 평안북도, 황해남도, 미루물물결공사중앙지휘부에서 여러 려단의 일군

들과 돌격대원들은 기본물결물결을 끝낸 기세로 공사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특히 미루물물결공사중앙지휘부에서 여러 려단들과 황해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에서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개척공사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철도성, 건설경제공업성령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건설자들도 기본물결도강을 련이어 관통하면서 확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평안남도과 동산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물결공사장적으로 제일 어렵고 힘든 작업장들에 대한 결정을 끝낸데 이어 련이어 기본물결물결에 진입하여 공사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희천 1호발전소 발전기설공사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의 뒤를 이어 공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도 요즘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설비제작공사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송진건설전도 적극 추진되어 짧은 기간에 10여기의 철함을 세우려는 자랑찬 성과가 기록되었다.

희천 1호발전소 발전기설공사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의 뒤를 이어 공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도 요즘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설비제작공사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송진건설전도 적극 추진되어 짧은 기간에 10여기의 철함을 세우려는 자랑찬 성과가 기록되었다.

희천 1호발전소 발전기설공사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의 뒤를 이어 공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도 요즘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설비제작공사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송진건설전도 적극 추진되어 짧은 기간에 10여기의 철함을 세우려는 자랑찬 성과가 기록되었다.

남포시들격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공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닥친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맞받아 나가야 합니다.》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와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가고있는 돌격대원들속에는 애로와 난관앞에 주저함이 없이 집단적 혁신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남포시들격대원들도 있었다.

희천발전소 발전기설공사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의 뒤를 이어 공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도 요즘 희천 2호발전소 발전기설비제작공사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송진건설전도 적극 추진되어 짧은 기간에 10여기의 철함을 세우려는 자랑찬 성과가 기록되었다.

(어떻게 하면 공사기일을 앞당길 수 있겠는가.) 당도를 찾아 사색을 이어가던 지휘관 림춘성동무는 희천발전소건설과 관련한 주신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다가 무릎을 쳤다.

“물결물결공사를 빨리 끝내려면 작업장을 넓혀야 한다. 대담하게 작업장을 하나 더 뚫어 공사를 체계적으로 내밀자.

돌격대에서는 지휘관들의 협의를 열었다. 협의회에서는 도강결정에 달려붙는 역량을 분산하여 한개 대에는 이미 뚫은 작업장을 리용하여 기본물결물결을 진행하고 다른 대에는 기본물결물결의 중간계선을 향한 작업장을 하나 더 뚫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면 건반적인 공사기일을 훨씬 앞당길 수 있었다.

늘어놓았다. 운반공들이 하루에도 연 수십리나 되는 막장길을 오가며 운반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착암공, 발파공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리성남, 조남혁 동무들은 자기 과제가 끝난 후에도 스스로 다음교대원들을 도와 착암과 발파작업을 함께 하면서 헌신의 구슬땀을 바치였다.

작업장이 더 늘어나면서 압축기의 능력이 모자라 공사에 지장을 받게 되자 최영동동무는 압축기의 전동기를 개조하여 그 능력을 높일것을 결심하고 자기가 일하는 기어실도 떼었다. 그는 기어실업군들과 중공업원들의 방조밑에 전동기를 개조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감동된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내부에서 탐구동원하여 마련한 설비들을 보내주어 그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

이런 전진불발의 투쟁과정에서 2명의 기본물결물결공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짧은 전야가 열리게 되었다.

오늘도 이곳 발전소와 돌격대원들은 당대표자회를 자랑찬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해 부단치는 난관을 맞받아싸고 나가면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제끼고있다.

지휘관들은 다른 경에 비해 작업장인가 2개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하지만 작업장이 협소하다보니 굴뚝기설을 높이 지 못하였던 것이다.

성심성의로 도와준다

성, 중앙기관에서 희천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내주기 위해 사업을 짜고치고있다. 중앙기관에서 희천발전소건설에 대한 현지지도소식을 접한 즉시 협의를 비롯한 설비들과 많은 량의 공사용자재들을 보내주어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희천발전소건설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여 성심성의로 도와야 합니다.》

3월 3일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소건설을 짧은 기간에 완공시켜 달라는 말씀을 바치자마자 중앙기관에서 희천발전소건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당의 전투적소속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의 책임일군들이 이 사업을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희천발전소건설에 대한 현지지도소식을 접한 즉시 협의를 비롯한 설비들과 많은 량의 공사용자재들을 보내주어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희천발전소건설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여 성심성의로 도와야 합니다.》

3월 3일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소건설을 짧은 기간에 완공시켜 달라는 말씀을 바치자마자 중앙기관에서 희천발전소건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당의 전투적소속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의 책임일군들이 이 사업을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희천발전소건설에 대한 현지지도소식을 접한 즉시 협의를 비롯한 설비들과 많은 량의 공사용자재들을 보내주어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희천발전소건설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여 성심성의로 도와야 합니다.》

3월 3일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소건설을 짧은 기간에 완공시켜 달라는 말씀을 바치자마자 중앙기관에서 희천발전소건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용산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용산려단이 맡은 작업기간은 물결공사장적으로 제일 어려운 구간들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부단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싸고나가며 날이날마다 자랑찬 결실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팔꿈치나 조건다발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딪친 난관을 용감하게 맞받아싸고나갈 줄 아는 혁명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시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려단일군들은 이미 정한 공사기일을 더 앞당길 목표를 내세웠다. 그런데 련양비밀들의 능력이 높지 못하여 운반시간이 오래 걸렸다.

려단의 책임일군들은 먼저 전동기를 실정에 맞게 개조하여 조건보다 능력을 높이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수리기도 없는 현장에서 어떻게 전동기를 개조했는가고 하면서 전문공장에 보내어 개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려단장 리문창동무는 우리에게는 재간있는 기술자, 기능공들도 많다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치면 능히 자재의 힘으로 전동기를 개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중을 불리워왔다.

일군들이 수백리 떨어진 곳에 다녀오면서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들을 마련하였고 기술자들은 밤을 밝혀가며 개조안을 완성하였다. 이런 준비밑에 김필, 오충근, 장일남동무를 비롯한 기술자, 기능공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전동기개조에 달려붙어 짧은 기간에 성과적 지휘를 희천속도창조자의 본래를 파시하며 언제공사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성, 중앙기관과 각 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물결공사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함경남도과 평안북도, 황해남도, 미루물물결공사중앙지휘부에서 여러 려단의 일군

들과 돌격대원들은 기본물결물결을 끝낸 기세로 공사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특히 미루물물결공사중앙지휘부에서 여러 려단들과 황해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에서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개척공사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철도성, 건설경제공업성령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건설자들도 기본물결도강을 련이어 관통하면서 확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평안남도과 동산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물결공사장적으로 제일 어렵고 힘든 작업장들에 대한 결정을 끝낸데 이어 련이어 기본물결물결에 진입하여 공사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전원들 책임지고 맡은 발전기설비 제작을 보충하는 일군들의 모습이다.

건설장이 자랑하는 혁신자들

실력있는 지휘관 건설경제공업성령단에 가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모두가 존경하며 따르는 지휘관이 있다. 그가 바로 3대대 참모장 김명철동무이다. 그는 전투적격과 지휘를 기동적으로 능숙하게 하여 대대가 높은 공사실적을 올리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연예인이 권양기가 뜻밖에도 고장났을 때에도 그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기하고 수리전투

를 조직지휘하여 단 몇시간만에 설비를 성과적으로 수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언제나 막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고 전투지휘를 잘하여 대원들로부터 실력있는 지휘관으로 불리우며 존경받고있다.

존경받는 재대군인부부 함경남도려단 단천시대대 박용근, 원경성동무들은 돌격대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재대군인부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주제교예예술을 더욱 발전시키자

평양교예단 중업원결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교예단 중업원결기모임이 10일에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안동출판사, 판계부서 일군들, 평양교예단 일군들과 중업원들, 문화예술부문 창작자,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문화성당위원회 책임비서 리명모의 보고에 이어 단장 박수익, 배우 리태금, 부단장 김성일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열마진 평양교예단의 종합교예공연을 몸소 보아주시고 주제교예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지중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문예방침을 창작실현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인민의 지향과념인, 혁명적기질을 반영한 훌륭한 공연을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기도 전에 연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으며 민족교예발전에 공헌한 창작자, 예술인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베풀어주시었다고 그들은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 교예가 인민의 사랑을 받는 예술로 발전하게 된것은 사회주의 민족교예가 나아가길 위한 활력배를 주시고 결승길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창작자, 예술인들이 교예창작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

으로써 신근시대 교예예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당의 주제교예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면서 민족교예발전에 쌓아올린 결실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예창작에서 주제성과 민족성을 적극 살려 사회주의적내용에 민족적정성을 출제 결합시키고 시대적미감의 인민의 정서에 맞는 우리 식의 교예명작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공중교예, 수중교예를 비롯한 체육교예를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쏟으며 희극교예와 동물교예를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현대과학기술

에 의거한 요충목도 발전시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예배우후비양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세 세대의 요구에 맞게 교예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일군들과 창작자, 예술인, 중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진군인을 양성하는데 공헌하시기를 강하게 촉구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신 편지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수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 힘있게

황해남도협동수산물관리위원회 아래 수산협동조합들에서

황해남도협동수산물관리위원회 아래 수산협동조합들에서 당대표자회를 높은 수산물생산량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이고있다. 바다나물과 물고기생산에 힘을 넣어 위회회적인 상반년 수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한 여러 수산협동조합일군들과 어로공, 양식공들이 이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협동수산물관리위원회 일군들은 이

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한반도에 바다나물과 물고기생산량을 어김없이 늘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기술지도를 짜고들고있다. 위원회하에 수산협동조합들에서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수산물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양식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재령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양식공들이 년간계획을 상반년기간에 끝낸 기세로 다음해생산준비에 들어갔다. 조합에서는 어장정리와 시설물정리, 종자방출 준비 등 수산물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하나하나 모가 나게 수행해나

가고있다.

량양, 제도수산협동조합과은물, 봉천수산협동조합에서 물고기를 민바다에서 조급가까운바다에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을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적극적인 어로전투를 벌여 상반년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이것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양양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가을철과 겨울철물고기잡이를 위한 어구준비와 배수리에 큰 힘을 쏟고있다. 이와 함께 어장정리를 바르고 양식물고기잡이방법을 적극 알선하면서 사시절 바다를 비우

지 않기 위한 투쟁을 맹렬히 벌이고있다.

충진근 중업, 해주시 봉양, 서해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도 당대표자회를 맞이해 수산물생산량을 더 늘이기 위한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면서 여러가지 물고기잡이방법을 널리 적용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도협동수산물관리위원회에서는 재배어업을 발전시키는데도 각별한 힘을 쏟고있다. 그에 따라 수산협동조합들이 많이 마련되어있는 바스케기, 굴, 맛시식장들의 기술관리를 잘하는것과 함께 그 면적을 늘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세워지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가을배추모음겨심기를 본격적으로

당창간 65년과 역사적인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할 한마음으로 단군대국의 남새전문농장들이 가을배추모음겨심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을남새농사도 잘 지어야 합니다.》

구역의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들어가 인민생활향상의 해인 뜻깊은 올해에 가을남새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들을 단련한 배추모음겨심기에 적극 불려넣었다.

구역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배추모음겨심기를 주제농업의 요구대로 적기에 잘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

만경대구역의 남새전문농장에서

적으로 하기 위한 작전과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갔다. 동산남새전문농장에서 배추모음겨심기와 관련한 구역직인 보려주사업을 진행한 경영위원회일군들은 유기술비료를 적극 리용하여 포전들의 지력을 높여주어 생형완전에 의한 모기르기 방법을 100%로 받아들여도록 하였다. 농장에서는 내려간 경영위원회일군들은 포전들을 밝아보면서 시대특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배추모음겨심기를 위한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일정작업가을경이와 발달이도 미리 앞세워나가도록 하였다.

배추모음겨심기가 시작되자 농장포전들이 들끓고있

다. 만경대, 봉수, 칠골남새전문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북쪽 내면서 주제농업의 요구대로 배추모음겨심기를 철저히 지켜

다. 만경대, 봉수, 칠골남새전문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북쪽 내면서 주제농업의 요구대로 배추모음겨심기를 철저히 지켜

다. 만경대, 봉수, 칠골남새전문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북쪽 내면서 주제농업의 요구대로 배추모음겨심기를 철저히 지켜

다. 만경대, 봉수, 칠골남새전문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북쪽 내면서 주제농업의 요구대로 배추모음겨심기를 철저히 지켜

기술지표의 요구대로 철저히 키워낸 배추모음겨심기에

다. 만경대, 봉수, 칠골남새전문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북쪽 내면서 주제농업의 요구대로 배추모음겨심기를 철저히 지켜

다. 만경대, 봉수, 칠골남새전문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북쪽 내면서 주제농업의 요구대로 배추모음겨심기를 철저히 지켜

다. 만경대, 봉수, 칠골남새전문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북쪽 내면서 주제농업의 요구대로 배추모음겨심기를 철저히 지켜

혁신의 기상 내려치는 포전

라관구역 류소남새전문농장 남새제2작업반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새생산도 잘 하였습니다.》

여기는 배추산위인들의 불멸의 자옥이 뜨겁게 어려있는 락방구역 류소남새전문농장의 남새제2작업반의 포전이다. 지금 여기에서는 가을배추모음겨심기가 한창이다.

배추모음겨심기에 펼쳐나선 작업반원들 모두가 인민생활향상의 해인 올해에 수도민들에게 더 많은 가을배추를 보내줄것을 다짐하고 배추모음겨심기에 열매를 맺고있다.

다. 만경대, 봉수, 칠골남새전문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북쪽 내면서 주제농업의 요구대로 배추모음겨심기를 철저히 지켜

다. 만경대, 봉수, 칠골남새전문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북쪽 내면서 주제농업의 요구대로 배추모음겨심기를 철저히 지켜

다. 만경대, 봉수, 칠골남새전문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북쪽 내면서 주제농업의 요구대로 배추모음겨심기를 철저히 지켜

다. 만경대, 봉수, 칠골남새전문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북쪽 내면서 주제농업의 요구대로 배추모음겨심기를 철저히 지켜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삼동구역 장천남새전문농장 남새제1작업반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새생산도 잘 하였습니다.》

여기는 배추산위인들의 불멸의 자옥이 뜨겁게 어려있는 락방구역 류소남새전문농장의 남새제2작업반의 포전이다. 지금 여기에서는 가을배추모음겨심기가 한창이다.

배추모음겨심기에 펼쳐나선 작업반원들 모두가 인민생활향상의 해인 올해에 수도민들에게 더 많은 가을배추를 보내줄것을 다짐하고 배추모음겨심기에 열매를 맺고있다.

절세의 위인들의 은정넘치는 인민의 봉사전당

옥류관 창립 50돐을 맞으려

어느덧 반세기라는 세월이 흘렀다. 주제 49 (1960)년 8월 옥류관이 준공된 때로부터 50년이 되었다.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수놓아온 인민봉사의 대진당-옥류관의 반세기라는 세월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이 세상에 들도 없는 인민의 봉사전당을 마련해준 신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득차오른다.

위대한 영웅과 더불어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해결같은 지지는 우리 당의 불철의 힘의 원천이며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영예이며 자랑이다.»

50년혁사의 추억의 걸림돌은 우리의 가슴속에는 주제 47 (1958)년 8월의 잊을수 없는 그날의 새벽이 제일인것 때오른다.

수도사관들이 아직 단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인 이른 새벽 대동강에 한척의 배가 떠가고있었다. 배에는 우리 수령님께서 타고있었다.

대동강을 오르내리시며 평양 대극장과 옥류관을 건설할 자리를 잡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반월도양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배를 멈추게 하시었다. 가슴에 솟아있는 바위벽을 오르도록 살펴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서서 바위가 옥류관인데 집터라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저 옥류역우에 대동강의 풍경에 어둡더라도 마치 물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조신식료리집을 하나 건설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었다.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행달리는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옥류관의 설계로부터 시작하여 건설의 전과정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 주제 49 (1960)년 8월 13일 옥류관이 준공되었다. 수령님께서 수도 평양의 풍치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새로 건설한 인민의 봉사기지를 옥류관이라고 불리시었다. 품속 중공시장이 나오시어 우리 인민들에게

이처럼 좋은 집을 지어준것이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민면에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버이수령님께서 옥류관에 60여차례나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었다. 그 자욱자욱에는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들이 즐겨하는 평양편의의 집을 알아보기 위하여 옥류관을 찾으시어 인민들과 똑같은 국수를 드시던 그날도 있었고 품속 주방에까지 들리시어 평양편의의 진미를 살리는 방법과 옥수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감동깊은 사연도 깃들여있으며 봉사사업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이야기도 깃들여있었다.

그 나날에는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생겨져왔다.

이날 일꾼들로부터 얼마전에 있는 옥류관의 료리품평회 정형과 제기된 의견을 보고받은 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말 옥류관건물은 건축에서 걸작중의 걸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양》 하민 《옥류관》 또는 《옥류관의 국수》 하고 옥류관이 먼저 꼭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 이반 품평회를 통하여 우리는 옥류관에서 만드는 국수와 료리에 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찾아보면 있다고 하시며 인민들의 기대속에 개관된 옥류관이 봉사를 잘하려면 국수를 비롯하여 민족음식을 잘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고, 고유한 민족음식의 하나인 국수를 잘 만들어 옥류관국수가 소문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 평양편의는 메밀국수인데 옥류관에서 평양편의를 잘 하면 된다면 메밀국수라도 메밀가루를 잘 내야 한다고, 메밀국수의 가루를 잘 내는것과 함께 김치주미를 맛있게 두어야 제맛이 난다고 일깨워주시었다.

오늘날 평양편의의 진미를 잘 살리고있어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옥류관의 국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랑이 깃들여있다.

어느해인가 옥류관을 또다시 찾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료리사들도 알지 못하였던 평반국수의 특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나서 일꾼들에게 옥류관에서 국수외에 무엇을 더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한 일꾼이 녹두지짐과 갈비국, 에스키모를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과 청량음료를 만든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녹두지짐은 어떻게 지어야 하고 갈비국은 어떻게 끓여야 제맛이 나며 에스키모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것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 옥류관의 음식을 자주 맛보고 음식을 잘하지 못할 때에는 비판도 하려고 한다는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었다.

인민들에게 더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이시려고 그 가공방법에 대해서까지 가르쳐주시며 인민들이 먹을 음식의 질에 대한 높은 요구사항까지 제기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이렇듯 다신하고 뜨거운 사랑속에 옥류관은 우리 나라의 물론 온 세상을 천하별미를 자랑하는 평양편의와 갖가지 민족음식으로 소문을 내는 민족음식의 원종장, 인민의 사랑을 받는 대중적봉사기지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다.

우리 인민에게 하나를 주시면, 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며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정을 우리 어떤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간들 잊을수 있으랴.

대중봉사기지로서의 옥류관의 력사, 세상을 자랑높은 평양편의를 비롯하여 민족료리들에 넘치는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즐거이게 이어져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속에 태어난 옥류관이 민족료리의 원종장, 세상을 이롭게하는 봉사기지로 더욱 빛나도록 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깊은 관심을 들리시며 뜨거운 사랑을 기울여주시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에 뜨겁게 울리고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깊은 말씀이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쁘까지

친히 달아주시던 옥류관에 나오시어 그토록 만족해하시면서 수령님의 고마운 은덕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 언제인가는 품속 옥류관에 나오시어 식당운영상태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료해하시다가 옥류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고반드시는듯 두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두개의 별관을 일떠세워 손색없는 사회주의급양봉사기지로 그 위용을 떨치게 하신 우리 장군님의 은정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옥류관을 찾으실 때마다 옥수와 국수구미, 국수가공방법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에 받들려 평양편의를 비롯하여 옥류관의 모든 음식들은 자기의 진미를 한껏 살려내 세상에 소문을 내게 되었다.

우리 조국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을 겪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옥류관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려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옥류관은 민족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상징적인 식당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식당부분에서 제일 앞장서나가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시었다.

오늘 옥류관의 또 하나의 자랑인 고기생반국수에도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깃들여있었나, 아직 나라해편이 어렵던 때였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옥류관에서 고기생반국수를 잘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할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봉사에 필요한 고기와 갖가지 양념감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늦게까지 늦게까지 일식으로 새로 만들어 보내주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수심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옥류관이 료리맛에서뿐만 아니라 건국에서도 세상 으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품속 견공사를 발기하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었으며 새로 꾸러진 옥류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안겨주시는것이 그리도 만족하시어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은정은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사랑의 전설로 뜨겁게 새겨졌다.

옥류관이 인민을 위하여 참담하게 복무하는 인민의 봉사기지로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옥류관에 꽃피는 자랑은 그 열매이던가. 예로부터 유명한 민족음식인 평양편의와 평반국수 소문을 낸 옥류관이 오늘은 여러가지 명료리봉사로 그 이름을 더욱 빛내이고있다.

메추리료리, 자라료리, 철갑상어료리, 연어료리... 여기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이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올해에만 옥류관의 명료리봉사와 관련된하여 많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옥류관에서 국수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료리들도 잘 만들어보라고 가르쳐주시며 그에 맞게 료리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쩍 높여주기 위한 대책까지 세워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옥류관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끄시어주시던 식민정권만들기 우리 나라에서 좋다는 료리는 다 해야 한다고, 국수만이 아니라 명료리봉사로도 잘해주시고 소문을 내야 한다고 하시며 옥류관에 료리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따로 내도록여러차례에 걸쳐 은정어린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에는 정녕 끝이 없었다.

옥류관에서 진귀한 료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봉사할수 있도록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원자재보장으로부터 그 수송과 보관, 료리방법과 봉사원칙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자라료리를 할 때는 꼭 산 자라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그 운반대책까지 가르쳐주시고 옥류관의 료리사들이 어떤 진귀한 료리들도 다 훌륭히 만들어내게 준비되었다는것을 아시고는 더없이 기뻐하시며 고무격려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명료리봉사기지답게 접대원들의 옷차림도 새롭게 하도록 마음써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속에 지난해에는 메추리료리봉사가 새로 시작되는데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는 쇠고기 한 자라료리와 철갑상어료리, 연어료리가 새로 식당에 올라 손님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정녕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자랑한 발전의 길을 걸어나 옥류관은 오늘 수많은 민족음식봉사와 명료리봉사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민봉사의 대진

당으로,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해마다 앞장에 서고 인민군대원호와 사회주의대건설지원사업에서도 도모적인 단위로 그 이름을 빛내고있다.

옥류관은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현대적인 봉사설비와 최최한의 편의조건이 갖추어진 최급급의 대중급양봉사기지로 전변되었으며 하루봉사능력이 장초기보다 비할바없이 엄청나게 증가한 인민봉사기지로 그 모습을 자랑하고있다.

우리는 이 글에 옥류관의 력사와 더불어 전해지고있는 우리 인민들과 남녘의 동료들, 외국이 벗들의 목소리도 실는다.

«예로부터 신하는 일하고 임금은 천다고 하여 <신로군일>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 로동당시대에는 인민들이 앞서서 임금처럼 호식을 하고 나라와 만백성의 운명이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결코 인민에게의 귀한 이익이 아니기 가슴속에 가득차오르는 이 감사의 정을 그 어디에 비길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특정한

계층이나 맛보며 향유할 고급 료리들이 우리 인민에게 제일 먼저 차례지는 이런 현실은 오직 우리 조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희한한 현실입니다.

«말로만 들던 옥류관에 와서 유서깊은 대동강을 바라보며 평양편의의 진미를 보게 되니 통일외지가 더욱 새차게 분출하겠습니까.»

«통일된 후 다시한번 자리를 같이하자! 통일외의 날이 속히 다가오기 바랍니다.»

«료리맛도 인상깊지만 여기에 깃든 사연들도 참으로 감동 깊습니다.»

정녕 옥류관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인민위천>의 범인이 그대로 반영된 훌륭한 집합이다. ...

그렇다. 옥류관은 정녕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절세의 위인들의 사랑으로 빛나고 그 사랑속에 꽃피는 인민의 웃음, 인민의 행복으로 가득찬 내 조국의 자랑이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세상에 소문을 내는 봉사기지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봉사전당으로 더욱 이름떨치게 될것이다.

글 및 사진 봉사기자 윤지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일본청년주제사상연구회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10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엔도 노부아키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청년주제사상연구

회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손님들은 조국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자유화위업수

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남조선 적십자사 총재에게 통지문을 보내었다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에게 통지문을 보내었다. 통지문은 평양에 체류하고있는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

목사의 요구에 따라 8월 15일 그가 판문점을 통하여 남조선지역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적십자

사가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 인도주의적정지에서 목사의 무사귀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통지문을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 국제친선전람관과 서해갑문 참관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가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세계 수많은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지명인 인사들,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이 드린 선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이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20리 날마다우에 기념비적장소들로 훌륭히 일떠세운 서해갑문의 건설과정을 보여주는 투화물을 시청한 다음 정경대에 올라 갑문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한편 목사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였다. →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 국제친선전람관 참관

목사는 또한 서해갑문을 참관하였다. 그는 우리 군대와 인민

이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20리 날마다우에 기념비적장소들로 훌륭히 일떠세운 서해갑문의 건설과정을 보여주는 투화물을 시청한 다음 정경대에 올라 갑문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한편 목사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였다. →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 국제친선전람관 참관

인민보안부대표단과 중국공안부대표단 회담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안부대표단 성원들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교류와 협력

을 강화할데 대하여서와 호상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중국공안부에서 인민보안부에 협조물자 기증

기증식이 1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최중화부부장을 비롯한 인민보안부 일꾼들과 류경 중국공안부 상무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안부대표단 성원들,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이 참가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신기 중국군우호연락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조우호방문단이 11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전영진 대

국방문단이 11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중친선양성]

회동했다. 이슬이 아롱진 풀판을 타고 추억이 물결쳐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군대가 강하여 당도 정권도 지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도 담보할수 있다.»

나아들에 외동딸, 이렇게 5남매를 둔 백영실부부이다. 그들을 마음사람들 누구나 부러워한다.

이들이 한창 자랄 때 남편은 군적으로 손꼽히는 혁신자직업반장이었고 영실씨 일육십삼은 농장원으로도 불리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공부를 잘하여 학교와 마을에서 칭찬을 받았다. 딸이 김철은 수학공부에 뛰어났고 둘째 김현철은 체육에 소질이 있었으며 셋째 김진철은 기타명수, 넷째

김인철은 교마문학가로 불리었다. 소학교시절부터 축구소조원인 딸 김경에는 배틀명수로 린에다 소문이 자자했다.

어찌된 자식들을 그러도 잘 키웠는가고 사람들이 말할 때면 김철은 웃었다. «제가 키웠나요? 나라에서 키웠지.»

«말할만 자식들을 볼 때마다

자본주의사회같으면 이 좁은 치마폭으로 저애들을 어떻게 다 감싸안으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방방곡곡에 빛나는 곳에 탁아소며 유치원, 학교들을 일떠세우고 무료교육, 무상치료를 비롯한 온갖 사회적혜택을 베풀며 나라의 미래를 키워가는 고마운 제도, 바로 그 몫이 있어 이 땅의 모

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농촌가정의 다섯남매도 마울것 배우며 든든히 자라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늘 이르곤 하였다.

«이 제도가 없으면 우리 가정도, 너희들도 없다. 우리 같은 근로인민이 주인이 된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아버지가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닌 날에도, 5개의 최우등성적증서에서 는 가족이 웃음꽃을 피우

던 날에도 어머니가 이렇게 한말은 다섯남매의 마음속에 연나 갔이 자리잡고있었다. 그후 네 아이들이 차례차례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갔다. 몇해전에는 경애까지 군복을 입었다. 아이들이 다 떠나가니 집안이 텅 빈것 같았다.

«그렇게 훌륭 다 집을 나서서 허전하지 않소?»

스승과 위훈

평양기관차대 대장 장수남동무의 생활에서

얼마전 증승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평양기관차대를 찾았던 우리가 대장 장수남동무를 만났을 때였다. 성글름글름한 그에게 무슨 사연인가고 묻자 그는 우리에게 손에 든 편지를 내미는것이였다.

«대하시절 우리 선생님의 편지입니다. 이런 편지가 자주 오곤 합니다.»

거기에는 한겨 단위를 책임진 일군단체 일을 더 잘하기를 바라는 스승의 고무와 기대가 담긴 글과 함께 기관차대에서 기술혁신인들을 받아들이는 데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여러건의 기술자료들의 출처도 들어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새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는데서 애로가 있어 안타까웠는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보니 막혔던 골목이 탁히 트이는것 같다고, 그래서 일에 막 성수가 난다고 그는 말하였다.

편지를 읽고나서 걸봉을 보니 거기에는 《만경대구역 팔팔 1천 전일로부터》라는 글자가 정성스라 쓰여져있었다.

알고보니 그는 장수남동무의 애소인 평양철도대학 교원이었던 전일일동무였다.

안고오는 축하의 인사와 기념품보다도 기관차대의 기술혁신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더 기쁘리곤 한 선생님. 그래서 스승의 생일날이면 의례히 가지가지의 사업성과들을 안고 선생님께 찾은 장수남동무이다.

한 교원의 제자이기 전에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한 대학졸업생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충직한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 마음속 스승, 인생의 참다운 보람을 마음속에 새겨주고 삼의 진정된 가치를 가르쳐준 언리 고마운 스승이 있기에 장수남동무는 오늘도 나라의 동맥을 지켜신 일군단체 마음의 신들미를 더 바짝 쓰이고 말려진 혁명위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애쓰고있다.

한 동무가 몸이 불편하여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는 사실을 알고면곳에 달려가 구해온 귀한 약으로 그의 병환에 정성을 다 하였다. 그러하여 그 동무가 자리를 털고일어나 정열적으로 일할수 있게 하였다.

«대하시절 우리 선생님의 편지입니다. 이런 편지가 자주 오곤 합니다.»

거기에는 한겨 단위를 책임진 일군단체 일을 더 잘하기를 바라는 스승의 고무와 기대가 담긴 글과 함께 기관차대에서 기술혁신인들을 받아들이는 데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여러건의 기술자료들의 출처도 들어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새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는데서 애로가 있어 안타까웠는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보니 막혔던 골목이 탁히 트이는것 같다고, 그래서 일에 막 성수가 난다고 그는 말하였다.

편지를 읽고나서 걸봉을 보니 거기에는 《만경대구역 팔팔 1천 전일로부터》라는 글자가 정성스라 쓰여져있었다.

알고보니 그는 장수남동무의 애소인 평양철도대학 교원이었던 전일일동무였다.

«우린 비록 교정을 떠났지만 선생님의 강의를 끝까지 잊었습니. 정말이지 선생님의 한 학생은 우리 제자들을 위해 울려왔습니다.»

생일날과 명절날 제자들이

한 동무가 몸이 불편하여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는 사실을 알고면곳에 달려가 구해온 귀한 약으로 그의 병환에 정성을 다 하였다. 그러하여 그 동무가 자리를 털고일어나 정열적으로 일할수 있게 하였다.

박원실동무의 아름다운 마음을 깃들여서 자기 작업원들들에 뿌리내린 농작물들은 나날이 키를 쫓고있다. 한 명 식

《달방》, 《달방》... 청신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려지는 종소리가 우리 동주민들의 가슴을 흔들여준다. 비가 오나 아니 오나 하루도 어김없이 울리는 새벽종소리의 주인공은 중국어 중성식료품상점 순경순동무이다. 남들이 깃들인 밤에도 주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기울인 그의 수고와 지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따끈한 국이며 반찬을 비롯한 먹을거리를 시로가공품들이 가정주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준다. 지난 초복과 중복, 말복날 새벽에는 단고기장까지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하러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

《달방》, 《달방》... 청신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려지는 종소리가 우리 동주민들의 가슴을 흔들여준다. 비가 오나 아니 오나 하루도 어김없이 울리는 새벽종소리의 주인공은 중국어 중성식료품상점 순경순동무이다. 남들이 깃들인 밤에도 주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기울인 그의 수고와 지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따끈한 국이며 반찬을 비롯한 먹을거리를 시로가공품들이 가정주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준다. 지난 초복과 중복, 말복날 새벽에는 단고기장까지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하러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

《달방》, 《달방》... 청신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려지는 종소리가 우리 동주민들의 가슴을 흔들여준다. 비가 오나 아니 오나 하루도 어김없이 울리는 새벽종소리의 주인공은 중국어 중성식료품상점 순경순동무이다. 남들이 깃들인 밤에도 주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기울인 그의 수고와 지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따끈한 국이며 반찬을 비롯한 먹을거리를 시로가공품들이 가정주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준다. 지난 초복과 중복, 말복날 새벽에는 단고기장까지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하러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

《달방》, 《달방》... 청신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려지는 종소리가 우리 동주민들의 가슴을 흔들여준다. 비가 오나 아니 오나 하루도 어김없이 울리는 새벽종소리의 주인공은 중국어 중성식료품상점 순경순동무이다. 남들이 깃들인 밤에도 주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기울인 그의 수고와 지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따끈한 국이며 반찬을 비롯한 먹을거리를 시로가공품들이 가정주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준다. 지난 초복과 중복, 말복날 새벽에는 단고기장까지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하러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

《달방》, 《달방》... 청신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려지는 종소리가 우리 동주민들의 가슴을 흔들여준다. 비가 오나 아니 오나 하루도 어김없이 울리는 새벽종소리의 주인공은 중국어 중성식료품상점 순경순동무이다. 남들이 깃들인 밤에도 주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기울인 그의 수고와 지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따끈한 국이며 반찬을 비롯한 먹을거리를 시로가공품들이 가정주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준다. 지난 초복과 중복, 말복날 새벽에는 단고기장까지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하러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

《달방》, 《달방》... 청신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려지는 종소리가 우리 동주민들의 가슴을 흔들여준다. 비가 오나 아니 오나 하루도 어김없이 울리는 새벽종소리의 주인공은 중국어 중성식료품상점 순경순동무이다. 남들이 깃들인 밤에도 주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기울인 그의 수고와 지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따끈한 국이며 반찬을 비롯한 먹을거리를 시로가공품들이 가정주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준다. 지난 초복과 중복, 말복날 새벽에는 단고기장까지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하러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

《달방》, 《달방》... 청신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려지는 종소리가 우리 동주민들의 가슴을 흔들여준다. 비가 오나 아니 오나 하루도 어김없이 울리는 새벽종소리의 주인공은 중국어 중성식료품상점 순경순동무이다. 남들이 깃들인 밤에도 주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기울인 그의 수고와 지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따끈한 국이며 반찬을 비롯한 먹을거리를 시로가공품들이 가정주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준다. 지난 초복과 중복, 말복날 새벽에는 단고기장까지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하러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

《달방》, 《달방》... 청신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려지는 종소리가 우리 동주민들의 가슴을 흔들여준다. 비가 오나 아니 오나 하루도 어김없이 울리는 새벽종소리의 주인공은 중국어 중성식료품상점 순경순동무이다. 남들이 깃들인 밤에도 주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기울인 그의 수고와 지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따끈한 국이며 반찬을 비롯한 먹을거리를 시로가공품들이 가정주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준다. 지난 초복과 중복, 말복날 새벽에는 단고기장까지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하러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

《달방》, 《달방》... 청신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려지는 종소리가 우리 동주민들의 가슴을 흔들여준다. 비가 오나 아니 오나 하루도 어김없이 울리는 새벽종소리의 주인공은 중국어 중성식료품상점 순경순동무이다. 남들이 깃들인 밤에도 주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기울인 그의 수고와 지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따끈한 국이며 반찬을 비롯한 먹을거리를 시로가공품들이 가정주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준다. 지난 초복과 중복, 말복날 새벽에는 단고기장까지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하러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

《달방》, 《달방》... 청신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려지는 종소리가 우리 동주민들의 가슴을 흔들여준다. 비가 오나 아니 오나 하루도 어김없이 울리는 새벽종소리의 주인공은 중국어 중성식료품상점 순경순동무이다. 남들이 깃들인 밤에도 주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기울인 그의 수고와 지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따끈한 국이며 반찬을 비롯한 먹을거리를 시로가공품들이 가정주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준다. 지난 초복과 중복, 말복날 새벽에는 단고기장까지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하러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

《달방》, 《달방》... 청신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려지는 종소리가 우리 동주민들의 가슴을 흔들여준다. 비가 오나 아니 오나 하루도 어김없이 울리는 새벽종소리의 주인공은 중국어 중성식료품상점 순경순동무이다. 남들이 깃들인 밤에도 주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기울인 그의 수고와 지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따끈한 국이며 반찬을 비롯한 먹을거리를 시로가공품들이 가정주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준다. 지난 초복과 중복, 말복날 새벽에는 단고기장까지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하러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

《달방》, 《달방》... 청신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려지는 종소리가 우리 동주민들의 가슴을 흔들여준다. 비가 오나 아니 오나 하루도 어김없이 울리는 새벽종소리의 주인공은 중국어 중성식료품상점 순경순동무이다. 남들이 깃들인 밤에도 주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기울인 그의 수고와 지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따끈한 국이며 반찬을 비롯한 먹을거리를 시로가공품들이 가정주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준다. 지난 초복과 중복, 말복날 새벽에는 단고기장까지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하러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

《달방》, 《달방》... 청신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려지는 종소리가 우리 동주민들의 가슴을 흔들여준다. 비가 오나 아니 오나 하루도 어김없이 울리는 새벽종소리의 주인공은 중국어 중성식료품상점 순경순동무이다. 남들이 깃들인 밤에도 주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기울인 그의 수고와 지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따끈한 국이며 반찬을 비롯한 먹을거리를 시로가공품들이 가정주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준다. 지난 초복과 중복, 말복날 새벽에는 단고기장까지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하러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

《달방》, 《달방》... 청신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려지는 종소리가 우리 동주민들의 가슴을 흔들여준다. 비가 오나 아니 오나 하루도 어김없이 울리는 새벽종소리의 주인공은 중국어 중성식료품상점 순경순동무이다. 남들이 깃들인 밤에도 주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기울인 그의 수고와 지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따끈한 국이며 반찬을 비롯한 먹을거리를 시로가공품들이 가정주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준다. 지난 초복과 중복, 말복날 새벽에는 단고기장까지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하러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

《달방》, 《달방》... 청신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려지는 종소리가 우리 동주민들의 가슴을 흔들여준다. 비가 오나 아니 오나 하루도 어김없이 울리는 새벽종소리의 주인공은 중국어 중성식료품상점 순경순동무이다. 남들이 깃들인 밤에도 주민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기울인 그의 수고와 지성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따끈한 국이며 반찬을 비롯한 먹을거리를 시로가공품들이 가정주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준다. 지난 초복과 중복, 말복날 새벽에는 단고기장까지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하러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

《달방》, 《달방》... 청신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려지는 종소리가 우리 동주민들의 가슴을 흔들여준다. 비가 오나 아니 오나 하루도 어김없이 울리는 새벽종소리의 주인공은 중국어 중성

